**기자조선**

* [기자조선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8%B0%EC%9E%90%EC%A1%B0%EC%84%A0)(箕子朝鮮, 기원전 1175년? ~ 기원전 1083년?)은 [기자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8%B0%EC%9E%90_%28%EA%B3%A0%EC%A1%B0%EC%84%A0%29)(箕子)는 [상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83%81%EB%82%98%EB%9D%BC)(商)나라의 왕족이며, 상(商)나라가 [주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3%BC%EB%82%98%EB%9D%BC)(周)나라에게 망한 후 [단군조선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B%A8%EA%B5%B0%EC%A1%B0%EC%84%A0)에 망명 후 조선의 왕이 되었다.

**위만조선**

* [전국 시대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0%84%EA%B5%AD_%EC%8B%9C%EB%8C%80)(기원전 403년 ~ 221년) 이후의 혼란으로 그곳의 사람들이 조선으로 많이 왔는데 그 시기에 [위만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C%84%EB%A7%8C)(衛滿)은 천여명의 무리를 이끌고 연(燕)에서 이주했다. 그러나 연(燕)에 살던 고조선 사람이라는 의견도 있다.
* [준왕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4%80%EC%99%95)(準王)의 신뢰를 얻어 서쪽 변방을 지키다 연(燕)나라에서 망명한 세력을 규합하여 기원전 194년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(準王)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됐다.
* 이후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예나 진(辰)이 한(漢)과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무역으로서 이득을 얻었으며 이는 한과의 갈등을 초래하여 한이 조선에 침략하는 계기가 됐다.

**고조선의 멸망**

* 한(漢)나라는 기원전 109년 위만조선을 침략했고, 위만조선에서는 우거를 중심으로 1년간 항전했지만, 내분으로 기원전 108년 왕검성이 함락됐다.

**한사군**

* 한(漢)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점령지역의 통치를 위해 4개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분할하였다. 이것이 한사군이다. 이후 토착민들과 고구려의 저항으로 멸망하게된다.